

유란시아서

<< [제 73 편](#) | [부분](#) | [내용](#) | [제 75 편](#) >>

제 74 편

아담과 이브

74:0.1 (828.1)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부터 따져서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은 봄이 무르익어 **동산**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도착했다. 정오에 발표도 없이, 두 천사 수송기가 **유란시아**로 생물학적 개량자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예루셈** 직원들을 동반하고, **우주의 아버지** 성전 근처에서, 회전하는 행성의 표면에 천천히 내렸다.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모든 작업은 새로 지은 이 성소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도착한 때부터, 그 세계의 새 통치자로서 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간 형태로 그들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열흘이 지났다. 그들은 동시에 의식을 다시 찾았다. **물질 아들**과 **딸**은 반드시 함께 봉사한다. 항상 어디서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베푸는 봉사의 본질이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일하라고 고안되어 있고, 홀로 활동하는 일은 드물다.

1. 예루셈 시절의 아담과 이브

74:1.1 (828.2) **행성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선임 물질 아들** 집단의 단원이었고, 함께 14,311번이었다. 그들은 셋째 육체 시리즈에 속했고, 키는 240센티미터가 조금 넘었다.

74:1.2 (828.3) **유란시아로** 오려고 뿔혔을 때, **아담**은 배우자와 함께 실험하고 시험하는, **예루셈**의 물리 실험실에 고용되어 있었다. 1만 5천 년이 넘도록 그들은 살아 있는 형태의 수정(修正)에 적용되는 실험 에너지 부문에서 지도자였다. 이보다 훨씬 전에 그들은 **예루셈**에서 새로 도착한 자들을 위한 여러 시민 학교에서 선생이었다. 그들이 **유란시아**에서 나중에 한 행위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4:1.3 (828.4) **유란시아에서 아담**으로서 모험하는 사명에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선포가 발표되었을 때, 선임 집단의 **물질 아들과 딸** 전부가 자원하였다. **멜기세덱** 검사자들은, **라나포지**와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의 승인을 얻어, 나중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활동하게 된 **아담과 이브**를 마침내 선택했다.

74:1.4 (828.5)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미가엘**에게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데도 그 쌍은 **체계 군주**와 그의 내각(內閣) 앞에서 검사와 지시를 받기 위하여 호출되었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일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충분한 발표를 들었고, 그들은 싸움으로 분열된 그런 세계에서 다스리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추구할 것인가 샅샅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자별**의 **미가엘**에게 충성한다는 합동 서약을 마쳤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 집단이 그들이 배치 받은 세계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때까지, 자신들이 그 통치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그들은 마땅히 충고를 받았다.

74:1.5 (829.1)

이 **예루셈**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다른 곳에 자손 1백 명 — 아들 50명과 딸 50명 — 을 남겨 두었는데, 이 아이들은 전진의 함정을 피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부모가 **유란시아**를 향하여 떠날 때, 우주 책임을 맡은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모두 임명되었다. 수여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예식과 관련된 작별 실습이 있고 나서 그들 모두가 **물질 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하였다. 이 아이들은 그들 계급의 비물질화 본부까지 부모를 따라갔고, 부모가 천사의 수송을 위한 준비에 앞서 성격이 의식을 잃고서 잠들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알리고 성공을 빈 자였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 행성에서,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 실제로 유일한 쌍 통치자가 곧 되리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이 회합한 가운데 얼마큼 함께 시간을 보냈다.

74:1.6 (829.2)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성공을 비는 가운데,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부닥칠 모든 임무와 위험에 관하여, 적절히 준비를 갖추고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서, 새로운 직책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나갔다.

2. 아담과 이브의 도착

74:2.1 (829.3)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잠에 빠졌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을 환영하느라고 모인 막대한 군중이 모여 있는 앞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익히 소문을 들어왔던 두 존재,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동료 **아마돈**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칼리가스티아**가 이탈할 당시에 있었던 이 두 영웅이, 새 **동산** 집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자였다.

74:2.2 (829.4) **에덴**의 말은 **아마돈**이 사용했던, **안돈** 족속의 방언(方言)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24 글자로 된 새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언어를 두드러지게 개량했고, 그들은 **에덴**의 문화가 세상에 두루 퍼짐에 따라서 그 말이 **유란시아**의 언어가 되는 것을 보기를 바랐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이 인간의 방언을 충분히 통달했기 때문에, 이 **안돈**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통치자가 그에게 자기 방언으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74:2.3 (829.5) “새들을 놓아주어라. 약속된 **아들**이 오셨다는 말씀을 새들이 전하게 할지어다”하고 외치면서, 멀리서 가까이서 모여든, 소식 나르는 비둘기의 회합 장소까지 주자(走者)들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그날 온 **에덴**이 크게 흥분하고 즐거워하였다. 신자들의 수백 촌락이 충실하게, 해마다, 바로 그런 경사를 위하여 집에서 기른 이 비둘기들을 계속 공급하였다.

74:2.4 (829.6) **아담**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바깥에 퍼지자, 근처에 있는 부족 사람 수천 명이 **반**과 **아마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한편 여러 달 동안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려고 **에덴**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74:2.5 (829.7) 깨어난 뒤에 곧, **아담**과 **이브**는 성전 북쪽의 큰 언덕에서 열린 정식 환영회까지 호위를 받았다. 자연히 생긴 이 언덕은 세상의 새 통치자들이 취임하는 것을 위하여 미리 확장되고 준비되었다. 여기서 정오에 **유란시아** 접대 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의 이 **아들**과 **딸**을 환영했다. **아마돈**은 이 위원회의 의장(議長)이었고, 그 위원회는 여섯 **산각** 종족으로부터 각자 대표 한 사람씩, 중도자의 임시 우두머리, 충성스러운 딸이자 **놏** 족속의 대변인 **아난**, **동산**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획의 집행자였던

노아, 그리고 거주하는 두 **생명 운반자**를 넣어서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74:2.6 (830.1) 다음 행위는 **유란시아** 관리자 회의(會議)의 우두머리인 선임 **멜기세덱**이 행성 관리 책임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놀라시아덱**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반**은 그들이 **유란시아**의 통치자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함으로 **반**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행위 덕분에 15만 년이 넘도록 지냈던 직함에 따른 권한을 포기하였다.

74:2.7 (830.2) **아담**과 **이브**는 이 기회에, 정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취임하는 이때, 임금다운 예복을 걸쳤다. **달라마시아**의 예술이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직물 짜기는 **에덴** 시절에 아직도 유행하고 있었다.

74:2.8 (830.3) 다음에 천사장들의 선포가 들렸고, **가브리엘**의 방송하는 목소리가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서, **유란시아**의 둘째 심판 점호,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제2 섭리 시대에,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이 부활(復活)될 것을 선포하였다. **영주**의 섭리 시대는 지나갔고, **아담** 시대, 곧 행성의 제3 시대가 소박하지만 위엄 있는 광경 속에 열린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권한을 가졌던 전임자의 협조가 부족해서 세계적 혼란이 있었는데도, **유란시아**의 새 통치자들은 유리하게 보이는 조건 하에서 통치를 시작한다.

3.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하여 배우다

74:3.1 (830.4)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행성이 고립된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귀에 익었던 방송은

조용했고, 행성 바깥과 통신하는 회로가 전혀 없었다. **예루셈**에 있던 동료들은 자리가 안정된 **행성 영주**와 경험 있는 참모진, 그러한 세계에서 초기에 체험을 겪는 동안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과 협동할 유능한 참모진이 있는, 순조롭게 운영되는 세계들로 가버렸다. 그러나 **유란시아**에는 반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행성 영주**는 상당히 활발했고, 악한 일을 저지를 힘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아직도 **아담**과 **이브**의 과제를 어렵게,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꿈에서 깨어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은 그날 밤 보름달이 비치는 아래서 **동산**을 통해서 거닐면서 다음 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74:3.2 (830.5)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이 있었던, 혼란에 빠진 행성에서 **아담**과 **이브**의 첫날이 이렇게 끝났다. 그들은 땅에서 지내는 첫날 밤에, 밤이 깊기까지 걷고 이야기했다 — 그리고 너무나 쓸쓸했다.

74:3.3 (830.6) 땅에서 **아담**이 지낸 둘째 날은 행성 관리자들과 자문 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가지면서 보냈다. 여러 **멜기세덱**과 그 동료들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칼리가스티아** 반란의 세부, 그리고 그 동란이 세상의 진보에 미친 결과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로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 세상사를 잘못 처리한 것에 관한 이러한 긴 이야기였다. 그들은 사회의 진화 과정을 가속하려던 **칼리가스티아**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에 관하여, 있는 사실을 모두 들었다. 또한 신의 진보 계획과 따로 행성의 진보를 이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어리석음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슬프지만 정신을 일깨워 주는 날 — **유란시아**에서 둘째 날 — 이 이렇게 저물었다.

74:3.4 (831.1)

셋째 날은 **동산**의 검열에 쓰였다. 사람을 태우는 큰 새 — 판도르 — 를 타고 **아담**과 **이브**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장소 위에서, 공중에서 나르는 동안에, **동산**의 광대한 지대를 내려다보았다. **에덴**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진 이 **동산**을 만들려고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돌리기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치르면서, 이 검열하는 날이 끝났다. 또 다시, 셋째 날 밤이 늦도록, 그 **아들**과 배우자는 **동산**에서 거닐고 그들이 닦친 문제가 얼마나 방대한가 이야기했다.

74:3.5 (831.2)

넷째 날에 **아담**과 **이브**는 **동산** 집회에서 연설했다. 취임식을 거행한 산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세계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관하여 말했고, 죄와 반란의 결과로서 **유란시아**가 굴러 떨어진 낮은 수준에서 그 사회 문화를 구제하려고 추구할 여러 방법의 윤곽을 설명했다. 이 날은 대단한 날이었고, 세상사를 운영할 새 행정부에서 책임을 맡으려고 뽑힌 남녀의 회의를 위한 잔치로 끝을 맺었다. 주목하라!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무리 속에 있었고, **달라마시아** 시절 이후로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브**가, 한 여자가, 남자와 함께 세상사의 명예와 책임을 나누는 것을 바라보다니, 놀라운 개혁이었다. 이렇게 땅에서 넷째 날이 끝났다.

74:3.6 (831.3)

다섯째 날은 임시 정부의 조직에 쓰였고, 이것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유란시아**를 떠날 때까지 앞으로 활동할 행정부였다.

74:3.7 (831.4)

여섯째 날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과 동물을 검열하는 데 쓰였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담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송을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명을 보았고, 그러한 여러 종류의 생물이 거하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많이 이해하였다.

74:3.8 (831.5) 보여준 수천 가지 동물의 성질과 활동을 얼마나 자세히 **아담**이 이해하는가 지켜본 것은 이 여행에서 그를 따라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한 동물을 한 번 보는 순간, 그는 동물의 성품과 행동을 지적하곤 했다. **아담**은 한 번 보고, 모든 물질 생물의 기원과 성품과 활동을 묘사하는 이름을 줄 수 있었다. 이 검열 여행에서 그를 안내한 사람들은 세상의 새 통치자가, 온 **사타니아**에서 가장 노련한 해부학자 중의 하나인 것을 몰랐다. **이브**는 똑같이 능숙했다. **아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은, 살아 있는 것들의 집단을 설명함으로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74:3.9 (831.6) 땅에서 머무른 여섯째 날이 저물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쪽”에, 그들의 새 집에서 처음으로 쉬었다. **유란시아** 모험을 하는 동안 처음 낯새는 아주 바빴고,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쉴 것을 기대하였다.

74:3.10 (831.7)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아담**이 **유란시아**의 동물 생명을 아주 총명하게, 아주 살살이 논했던, 막 지나버린 그날의 체험은, 능숙한 취임 연설과 매력 있는 몸가짐과 더불어, **동산** 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지능을 너무 압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는 옹드려 그들을 신으로서 예배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었다.

4. 첫 소동

74:4.1 (832.1) 그날 밤, 여섯째 날 밤에,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에덴**의 중앙 구역, **아버지**의 성전 근처에서 야릇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기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열심 있고 흥분한 남자와 여자 몇백 명이 자기네 지도자들의 탄원, 정열에 넘치는 탄원을 몇 시간 동안 들었다. 그들은 좋은 뜻을 가졌지만, 새 통치자들이 어째서 단순히 친근한 민주적 방법을 쓰는가 단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사를 새로 맡는 임시 행정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아담**과 그의 짝은 전적으로 너무나 겸손하며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神)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고,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신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숭배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아주 가깝다고 결정했다.

74:4.2 (832.2) **아담**과 **이브**가 땅에서 보낸 처음 엿새 동안의 놀라운 사건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준비되지 않은 지성에 아주 너무나 벅찼다. 그들의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다. 사람마다 존경심으로 숭배하는 태도로 절하고 겸손하게 복종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그 고귀한 쌍을 정오에 **아버지**의 성전으로 모셔오자는 제안에 그들은 함께 휩쓸렸다. 그리고 **동산** 거주자들은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진지했다.

74:4.3 (832.3) **반**은 항의했다. **아마돈**은 밤 동안 **아담**과 **이브**와 함께, 뒤에 남은 명예 보초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반**의 항의는 일축되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너무 겸손하고 너무 티를 내지 않는다고, 그리고 바로 그는 신에게서 멀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땅에서 그리 오래 살았는가, 그리고 **아담**이 오는 것과 같은 큰 사건을 그가 어떻게 일으켰는가? 하는 말을 들었다. 흥분한 **에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찬미하려고 산까지 메고 올라가려 했을 때, **반**은 무리를 헤쳐 나가서, 중도자(中道者)들과 통신할 수 있으므로, 중도자의 우두머리를 황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74:4.4 (832.4)

좋은 뜻을 가졌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소스라치게 놀라운 소식을 **아담**과 **이브**가 들은 것은 땅에서 일곱째 날의 새벽이 가까운 때였다. 그러자, 사람 태우는 새들이 재빨리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려고 날아가는 동안에도, 중도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담**과 **이브**를 **아버지**의 성전으로 수송했다. 이 일곱째 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을 영접하던 산에서, **아담**은 신의 아들 계급에 관하여 설명하는 뜻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오로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명하는 자들만 숭배를 받아도 좋다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뚜렷이 일러주었다. **아담**은 그가 어떤 명예도, 그리고 어떤 존경도 받겠지만, 결코 숭배는 안 된다! 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74:4.5 (832.5)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고, 한낮이 되기 바로 전, 세계 통치자들의 취임을 **예루셈**이 인정한다는 소식을 가져온 천사 사자(使者)가 도착했을 무렵, **아담**과 **이브**는 군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계심의 물질적 상징이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들고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그분에게 경배하여 절하라. 그리고 이 행동으로 너희가 결코 다시 **하나님** 외에 아무도 경배할 유혹을 받지 않겠다고 성실하게 약속하라.” 그들은 다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동안 **물질 아들**과 **딸**은 외로이 고개를 숙이고 산에서 서 있었다.

74:4.6 (832.6)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의 기원이었다. 언제나 **에덴**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성전에서 한낮의 집회에 바쳤다. 오랫동안 이날을 자기 교양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오전은 육체의 개선에, 한낮은 영적 예배에, 오후는 지성의 교양에 바쳤고, 한편 저녁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데 쓰였다. 이것은 한 번도 **에덴**에서

법이 되지 않았지만, **아담**의 행정부가 땅에서 지배하는 한, 관습이었다.

5. 아담의 행정

74:5.1 (833.1)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아담**이 온 뒤에 거의 7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그들이 세상 일의 행정을 **아담**에게 넘기고 **예루셈**으로 돌아갈 때가 마침내 다가왔다.

74:5.2 (833.2) 관리자들과 작별하는 데 하루 종일이 걸렸고, 저녁 때 **멜기세덱**들은 각자 **아담**과 **이브**에게 작별하면서 조언을 주고 성공을 빌었다. **아담**은 여러 번 조언자들에게 땅에서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부탁했지만, 언제나 이 간청은 거절되었다. **물질 아들**들이 세상사의 운영을 완전히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사타니아**의 천사 수송기들은 **예루셈**을 향하여 14 존재를 싣고 자정(子正)에 행성을 떠났고, **반**과 **아마돈**의 이동은 **멜기세덱** 12명의 출발과 동시에 일어났다.

74:5.3 (833.3) 한동안 **유란시아**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아담**이 궁극에 **에덴**의 문명을 차츰차츰 확장시키는 일을 촉진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듯하였다. 그는 **멜기세덱**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바깥 세계와 무역 관계를 개발할 생각으로 공업 기술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에덴**이 붕괴되었을 때, 1백 개가 넘는 원시 제조 공장이 가동하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부족들과 널리 무역 관계가 수립되었다.

74:5.4 (833.4)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진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특화된 기여를 준비하려고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전에 교육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야만인 · 미개인, 그리고 절반 문명화된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과 같이 코앞에 닥친 문제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동산**에 모여든, 지구(地球) 인구의 노른자를 제쳐 놓고, **아담**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집단이 여기저기 겨우 몇이 있었다.

74:5.5 (833.5)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영웅답게 굳게 결심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는 곳마다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에 두루, 집단 통제 체계를 작동시켰고, 이 여러 중대(中隊)를 모두 **에덴** 연맹으로 연합하였다. 그러나 **아담**이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이 개념을 바깥의 부족들에게 적용하려고 애썼을 때, 문제, 심각한 문제가 뒤따랐다. **아담**의 동료들이 **동산** 바깥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저항, 잘 계획된 저항에 직접 부딪혔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행성에서 제거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도 땅에 있었고, 인간 사회를 회복하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다. **아담**은 **칼리가스티아**에게 적대하여 그 종족들에게 경고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대적(大敵)이 필사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아주 어렵게 되었다.

74:5.6 (833.6)

에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칼리가스티아**의 가르침에 빠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담**에게 끝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질서 있게 진보하고 착실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으로 짜놓은 계획을 언제나 뒤집어엮었다. 마침내 **아담**은 이들과 즉시 교제하려는 계획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반**이 조직하던 방법으로 되돌아갔으며, **에덴**

사람들을 1백인씩 중대로 나누고 각 중대에는 중대장, 그리고 10명의 집단을 책임지는 부관들을 두었다.

74:5.7 (834.1) **아담과 이브**는 군주 정치 대신에 대의(代議) 정치를 실시하려고 왔지만, 온 지구의 표면에서 자격 있는 정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 동안 **아담**은 대의 정치를 수립하려는 온갖 수고를 포기했고, **에덴**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그는 바깥에서 무역 및 사회 중심을 거의 1백 개 세우는 데 성공했으며, 거기에는 강력한 개인이 **아담**의 이름으로 다스렸다. 이전에 **반**과 **아마돈**이 이 중심들의 대부분을 조직한 적이 있었다.

74:5.8 (834.2)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보내는 것은 **아담**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정부의 진화에서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6. 아담과 이브의 가정 생활

74:6.1 (834.3) **아담** 가족의 집터는 12.8 평방 킬로미터가 조금 넘었다. 이 집터 바로 둘레에서, 30만 명이 넘는 순수 핏줄의 자손을 돌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 가운데 오직 첫째 단위가 언젠가 완성되었을 뿐이다. 이 초기의 시설이 넘치도록 **아담**의 가족이 늘어나기 전에, **에덴** 계획 전부가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동산**을 비웠다.

74:6.2 (834.4) **아담**손은 **유란시아**에서 보라 인종의 맏아들이며, 그 누이와 **이브**손, 곧 **아담**과 **이브**가 낳은 둘째 아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멜기세덱**들이 떠나기 전에, **이브**는 다섯 아이 — 세 아들과 두 딸 — 의

어머니였다. 그 다음에 둘은 쌍둥이였다. 그들은 임무 불이행이 있기 전에, 아이 63명, 곧 딸 32명과 아들 31명을 낳았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났을 때, 그들의 가족은 4대로 이루어졌고, 순수 핏줄 후손은 1647명이 되었다. 그들이 **동산**을 떠난 뒤에, 땅에서 필사자의 핏줄과 공동으로 부모가 되어 낳은 자손 2명을 제쳐 놓고, 아이들을 42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노트** 족속과 진화 민족들에게 부모가 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74:6.3 (834.5) **아담**의 아이들은, 한 살이 되자 어머니의 젖을 뗄 때 동물의 젖을 먹지 않았다. **이브**는 많은 종류의 견과의 즙과 많은 과일 주스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이러한 먹을 것의 화학 작용과 에너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 생겨날 때까지 **이브**는 아이들에게 영양이 되도록 이것들을 알맞게 섞어 주었다.

74:6.4 (834.6) **에덴**에서 **아담**의 구역 바로 바깥에는 불로 익혀 먹기가 널리 이용되었지만, **아담**의 집에서는 익혀 먹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먹을 것 — 과일 · 견과 · 곡식 — 이 익었을 때 먹기에 적당한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뒤에 곧, 먹었다. **아담**과 **이브**는 또한 생명나무의 혜택과 연결하여, 우주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74:6.5 (834.7) **아담**과 **이브**의 몸은 어렴풋한 빛을 발산했지만, 그들은 동료들의 관습을 좇아서 반드시 옷을 입었다. 낮에는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저녁때는 두르는 밤옷을 걸쳤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머리를 둘러싸는 전통적 후광(後光)의 기원은 **아담**과 **이브**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방사되는 빛은 대체로 옷에 가려졌으니까, 머리에서 방출되는 빛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담**손의 후손은 특별히 영적으로

앞섰다고 생각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언제나 이렇게 묘사했다.

74:6.6 (834.8) **아담과 이브**는 약 8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서로, 그리고 친자식들과 통신할 수 있었다. 이 생각 교환은 그들의 골 구조에 가까이 자리잡은 섬세한 가스 방을 이용함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용으로 그들은 생각의 진동을 보내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힘은 생각이 악의 불협화음과 교란에 굴복할 때, 순간적으로 정지되었다.

74:6.7 (835.1) **아담**의 아이들은 16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녔고, 나이든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다. 어린아이들은 30분마다, 큰 아이들은 시간마다 활동을 바꾸었다. **아담과 이브**의 이 아이들이 노는 것, 순전히 재미있어서 즐겁고 신나는 활동에 빠져 있음을 지켜보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분명히 새로운 광경이었다. 오늘날 종족들의 놀이와 유머는 대체로 **아담**의 핏줄로부터 유래한다. **아담** 족속은 모두 날카로운 유머 감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음악을 잘 이해했다.

74:6.8 (835.2) 약혼하는 평균 나이는 18살이었고, 그때 이 젊은이들은 결혼의 책임을 지는 준비로, 2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스무 살에 결혼할 자격이 있었고, 결혼한 뒤에 일생의 일을 시작하거나, 이를 위하여 특별한 준비에 들어갔다.

74:6.9 (835.3) 후일에 어떤 여러 나라에서, 신들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되는 왕족들의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관습은 — 그들이 서로 짝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 **아담** 후손의 전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산**에서 첫째와 둘째 세대의 결혼 예식은 반드시 **아담과 이브**가 거행하였다.

7. 동산의 생활

74:7.1 (835.4) **아담**의 아이들은 서쪽 학교에 4년 동안 다니는 것 외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일했다. 16살이 될 때까지, **예루셈** 학교의 방법을 좇아서, 지적 훈련을 받았다. 16살부터 20살까지, 그들은 **동산**의 다른 끝에서 여러 **유란시아**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서 또한 낮은 학급에서 선생으로서 봉사하였다.

74:7.2 (835.5) **동산**의 서쪽 학교 체계의 목적은 온통 교제였다. 오전의 휴식 시간은 실용적 원예와 농업에, 오후 시간은 경쟁하는 놀이에 쓰였다. 저녁은 사회적 교제를 가지고 개인의 친교를 개발하는 데 이용되었다. 종교 및 성(性) 교육은 가정의 분야, 부모의 임무로 여겼다.

74:7.3 (835.6) 이 여러 학교에서 가르침은 다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였다:

- 74:7.4 (835.7) 1. 건강과 몸을 돌보기.
- 74:7.5 (835.8) 2. 황금률, 사회적 교제의 기준.
- 74:7.6 (835.9)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 74:7.7 (835.10) 4. 여러 지구 종족의 역사와 문화.
- 74:7.8 (835.11) 5. 세계 무역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방법.
- 74:7.9 (835.12) 6. 임무와 감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 74:7.10 (835.13) 7. 놀이 · 유머, 육체적 싸움을 대신하는 경기를 개발하는 것.

74:7.11 (835.14) 학교는, 사실로 **동산**의 활동이, 모두 방문객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무기를 지니지 않은 관찰자는 잠시 방문할 경우에, **에덴**에 자유로이 입장이 허락되었다. 한 **유란시아인**이 **동산**에서 머무르려면 “입양되어야” 했다. 그는 **아담** 수여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 사명을 지키겠다는 뜻을 알리고, 다음에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의 아버지**의 영적 통치권에 충성을 선언했다.

74:7.12 (836.1) **동산**의 법은 예전의 **달라마시아** 율법에 기초를 두었고, 일곱 항목 아래에 선포되었다:

- 74:7.13 (836.2) 1. 건강 및 위생 법칙.
- 74:7.14 (836.3) 2. **동산**의 사회 규칙.
- 74:7.15 (836.4) 3. 무역과 상업의 법규.
- 74:7.16 (836.5) 4. 공정한 놀이 및 경쟁 법칙.
- 74:7.17 (836.6) 5. 가정 생활의 규칙.
- 74:7.18 (836.7) 6. 황금률을 받드는 시민 법규.
- 74:7.19 (836.8) 7. 최상의 도덕률인 일곱 가지 명령.

74:7.20 (836.9) **에덴**의 도덕 법규는 **달라마시아**의 일곱 계명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족속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여러 가지 추가된 이유를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에 관하여, **생각 조절자**가 깃드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추가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피를 흘려야 할지니, **하나님**이 그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이라” 하고 가르쳤다.

74:7.21 (836.10) **에덴**에서 대중(大衆) 예배 시간은 한낮이었고, 해질녘은 가족 예배 시간이었다. **아담**은 판에 박힌 기도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효과적 기도는 완전히 개인적이어야 한다, “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에덴** 사람들은 **달라마시아** 시절부터 내려온 그 기도와 형태를 계속해서 썼다. **아담**은 또한 종교 의식에서 피 흘리는 희생물 대신에 땅의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 바꾸려고 애썼지만, **동산**이 무너지기 전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74:7.22 (836.11) **아담**은 종족들에게 남녀 평등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이브**가 남편 옆에서 일하는 방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여자는 새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연합하는 생명 요소를 남자와 똑같이 이바지한다고 **아담**은 분명히 가르쳤다. 그때까지 인류는 모든 출산이 “**아버지**의 허리”에서 거한다고 가정했다. 어머니를 기껏해야, 미처 태어나지 않은 것을 먹이고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설로 바라보았다.

74:7.23 (836.12) **아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비교해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땅에 있는 종족들 가운데 영리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라 인종의 우수한 아이들과 서로 결혼할 허락을 받을 때를 열심히 기대했다. 종족을 개량하는 이 훌륭한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유란시아**가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을 것인가! 실제 일어난 그대로도, 진화 민족들이 어찌다가 확보한 이 소량의 수입(輸入)된 종족의 피로부터 엄청난 이득이 생겼다.

74:7.24 (836.13) 이처럼 **아담**은 그가 머무른 세계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이 섞인 잡종 민족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8. 천지 창조의 전설

74:8.1 (836.14) **유란시아**를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처음 훑어보는 데 꼭 엿새를 보냈다는 전통에 근거를 두었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 사람들이 최초로 소개한 한 주(週)의 기간을 거의 신성한 것으로 인가했다. **아담**이 **동산**을 검사하고, 예비적 조직 계획을 세우면서 6일을 보낸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예배하려고 일곱째 날을 고른 것은, 여기에 함께 이야기한 사실에 전적으로 우연히 생겼다.

74:8.2 (837.1) 세상을 엿새 안에 만들었다는 전설은, 사실 3만 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한 특성, 곧 해와 달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렸던, 미세한 먼지로 이루어진 짙은 우주 구름으로부터 세상이 한때 갑자기 나타났다는 전통에 기원을 가졌을지 모른다.

74:8.3 (837.2) **아담**의 갈비로부터 **이브**를 빚어 낸 이야기는 **아담**이 도착한 것과 45만 년도 더 전에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이 온 것과 관련하여, 살아 있는 물질을 서로 교환한 데 관련된 수술, 천상의 수술이 혼동되어 압축된 것이다.

74:8.4 (837.3) 세상 민족들의 대다수는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지어진 육체 형태를 입었다는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진흙으로 사람이 빚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에서 거의 보편적이었다. 이 전통은 **필리핀** 섬들을 비롯하여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집단이, 점진적으로 창조 — 진화 — 되었다는 초기의 관념 대신에, 어떤 특별

창조 방법으로 사람이 진흙에 기원을 가졌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74:8.5 (837.4)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인류는 인간종의 점진적 향상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의 사실은 현대에 발견된 것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이 진보하는, 느린 진화적 특징을 이해하였다. 옛날의 **그리스인**은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 생각을 뚜렷이 가졌다. 땅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진화 개념은 딱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원시 부족은 그들이 여러 가지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고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동물을 “토템”으로 고르는 관습을 가졌다. 어떤 북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그들이 비버와 이리에서 생겨났다고 믿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은 하이에나로부터, 한 **말레이** 부족은 리머로부터, 한 **뉴 기니아**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그들이 내려왔다고 가르친다.

74:8.6 (837.5) **아담** 족속 문명의 잔재와 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인**은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를 불리고 꾸몄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로부터 바로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그 민족이 귀족의 기원을 가졌다는 생각을 고수했고, 이것은 진흙에서 창조되었다는 교리와의 어울리지 않는다.

74:8.7 (837.6) 천지 창조에 관한 구약(舊約)의 설명은 **모세**의 시절이 훨씬 지난 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고 요약된 이야기를 제시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 부른 창조자, 곧 **우주의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그의 말이 더욱 호소력이 있기를 바랐다.

74:8.8 (837.7)

초기의 가르침에서 아주 지혜롭게도, **모세**는 **아담**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최고의 선생이었으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초기의 전통이 **아담** 이전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절 이전의 인간사(人間事)에 관한 어떤 언질도 없애려고 의도했던 후일의 편집자들이 소홀히 하여, **카인**이 “**놋**의 땅”으로 옮겨 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언급, 내막을 드러내는 언급을 없애지 못한 사실에 뚜렷이 나타난다.

74:8.9 (838.1)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뒤에 오랫동안, **히브리인**은 널리 사용한 글자가 없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필리스티아인**으로부터 알파벳 쓰기를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더 높은 **크레테** 문명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하여 온 자들이었다. **히브리인**은 기원전 약 900년까지 거의 글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 늦은 때까지 아무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천지 창조 이야기가 유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그들은 수정된 **메소포타미아** 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더 기울었다.

74:8.10 (838.2)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에 관하여 분명히 고정되었고, 그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추적하여 **아담**까지 미치려고 애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담**이 온 인류의 처음이라고 가정했다. **야웨**는 **창조자**였고, **아담**이 처음 사람이라 생각되었으니까 **야웨**는 **아담**을 만들기 바로 전에 세상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다음에 **아담**이 옛세를 보냈다는 전통이 그 이야기에 섞여 들어갔고, 그 결과로서 **모세**가 땅에서 머무른 지 거의 1천 년이 지난 뒤에, 옛세 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통이 기록되었으며, 나중에는 **모세**가 그 글을 썼다고 명예를 돌렸다.

74:8.11 (838.3)

유대인 사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의 기록을 이미 마쳤다. 곧 그들은 이

이야기가 최근에 발견된, **모세**가 적은 천지 창조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에, 당대의 **히브리인**은 이 글을 신이 준 계시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후일의 민족들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 글을 여겼다.

74:8.12 (838.4)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소문난 이 가짜 서적은 **프톨레미**, 곧 **그리스** 사람인 **에집트** 왕의 눈에 띄었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의 새 도서관을 위하여 이것을 70인 학자의 위원회에게 **그리스어**로 옮기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교**와 **기독교**의 “성서”에서 후기 수집의 일부가 된 글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 동일시됨으로, 그러한 개념들은 오랫동안 많은 서양 민족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74:8.13 (838.5) **기독교**의 선생들은 명령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관념을 영속하게 하였고, 이 모두가 한때 유토피아 같이 복된 황금 시대가 있었다는 가설, 그리고 사람 또는 초인간이 타락했다는 이론을 직접 형성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은 어째서 사회가 유토피아 아닌 상태에 있는가 설명했다. 인생, 그리고 우주에서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은 기껏해야 실망을 주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이 한때 어떤 행성 행정가들의 잘못 때문에 이를 꾸짖으려고 인류에게 노여움을 퍼부은 신, 복수심에 불타는 신을 암시할 뿐 아니라, 사람이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다는 관념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74:8.14 (838.6) “**황금 시대**”는 신화(神話)이지만 **에덴**은 사실이었고,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멸망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버티었고, 그때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그릇된 판단을 통해서,

이들은 예정된 길을 주저넘게 벗어났으며, 급속히 자신들에게 재난을 부르고, 망할 정도까지 온 **유란시아**의 발전하는 걸음을 늦추었다.

74:8.15 (838.7) [**“동산의 목소리”** 천사 **솔로니아**가 이야기했다.]